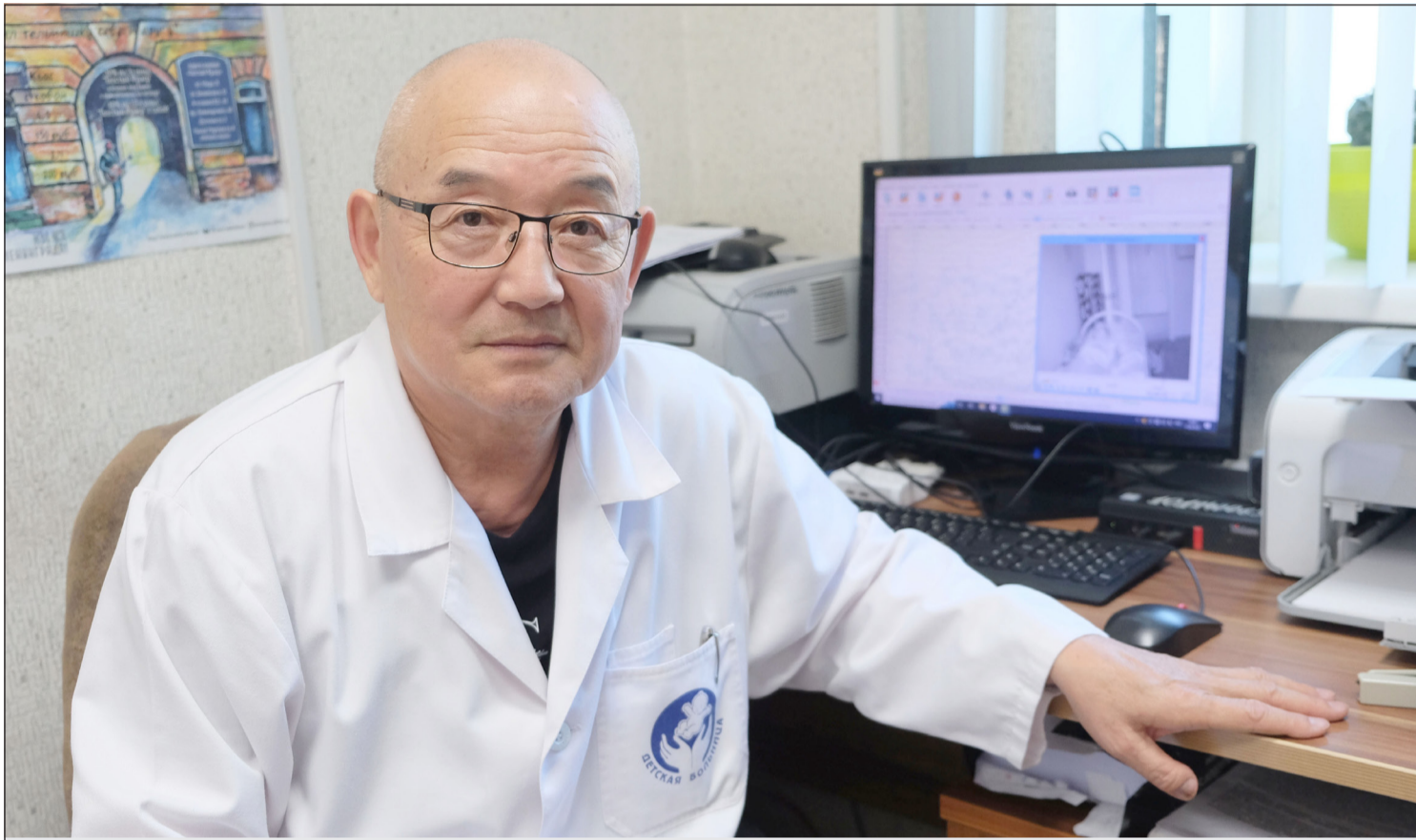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А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2년 6월 17일(금) --(음력 5월 19일)-- Пятница 17 июня 2022г. № 23 (1199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6월의 3번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의료인 직업 기념일로 기린다. 올해 의료인의 날은 6월 19일이다. 수준 높은 전문가로 잘 알려진 주 아동병원 초음파 및 기능진단과 의사인 동 블라디미르 콘스탄찌노비치는 이미 48여 년간 사할린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그는 톰스크 의대(전공 소아과)를 졸업한 후 사할린에 파견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동진료소들에서 일했고 1988년부터 계속 사할린주 아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기간 초음파 및 기능진단과 과장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에 사임하고 일반 전문 의료 삶을 누리고 있다. 동 블라디미르는 러시아의 명예 의사이며, 러시아 연방 보건 분야 우수 종사자로 인정됐다. (취재: 이에식 기자)

### 친애하는 의료인 여러분!

의료인 여러분들의 직업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날에 여러분이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로부터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인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에 대한 과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모든 의료인 여러분들은 코로나19와의 투쟁에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사할린 주민들에게서 공포스러운 질병의 위협을 거둬내고, 많은 통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더 질적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적 도움을 계속 제공한 가운데 예약 진료를 실시하고, 고령층을 위한 심층 검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의료적 훈련과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의료 전략은 연방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실적입니다.  
사할린 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취와 번영과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주지사, 도로 공사 문제로 회의 열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 지방자치체 도로 보수공사 이행 문제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코르사코브 시행정부가 러시아의 날인 6월 12일까지 주요 도로 웅덩이 보수공사 이행에 대한 지역에 설정된 주요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  
시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밝혀진 바로는 500개의 결손 도로 중 74개만이 처리되었다. 주지사는 조속히 도심 도로망의 웅덩이 보수공사를 지시한 가운데 공사는 6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할린 북부 지역도 기상 악화로 도로 보수공사를 제때 착수하지 못하여 2주에 걸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7월 1일까지는 티몹스코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노글리키 지역에서도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오후 지역의 공사는 7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는 도로 보수공사를 모두 잘 마쳤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도로 웅덩이 보수공사 처리 일환으로 6천 500m<sup>2</sup>의 도로망이 정비되었는데 이중 2천500 m<sup>2</sup>가 더 계획돼 공사됐다. 현재까지 사할린 지역 도로망에서 3천300개의 웅덩이 보수공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1,500개의 도로 결함이 해결되었다.  
2021년 사할린주에서는 기록적인 웅덩이 보수공사량이 완료되었으며, 오후 고속도로가 연방 도로로 이전되면서 주 예산 자금이 풀어지게 되어 지역 도로 정비 시행 명목으로 자금의 6배 이상이 지출되었다.  
올해 주지사는 도로 웅덩이 보수공사량을 20% 증가시키도록 했다. 올해는 사할린 지역에 주요 및 현재 도로 보수공사의 범위에서 105km의 도로를 공사할 예정이다.

### 단신

#### 리마렌코 지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5회 국제경제포럼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이 대규모 포럼에서 사할린주는 늘 많은 협약을 맺어왔다.  
2022년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세계 -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번 포럼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석해 탄소 실험 및 거대 응집체에 대한 몇 가지 주제로 발표한다.

#### 사할린주 치어 양식장, 태평양 연어 치어 방류

올해, 사할린주 연어 양식업체들이 개체 번식을 위해 10억 마리 이상의 치어를 방류한다.  
지난해 가을 사할린주 70개 양식업체의 부화장에 참여어, 송어, 시마, 키즈츠의 부화한 알 13억 개가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에 방류됐던 치어들 절반 정도가 쿠릴 열도로 유입됐다.  
'기드로스트로이' 수산업 지주회사는 치어 양식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송어 치어 7,700만 마리, 연어 치어 2억 마리를 양식장에서 바다로 방류했다.  
이번 시즌에 '기드로스트로이'는 송어 치어를 2배로 늘려 방류할 예정이다.  
올 여름에는 네웰스크 지역의 '카니프' 양식업체가 자체 4개 공장(로워츠키, 오부 토나이, 오네누시, 월니)에서 4천100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다.  
쿠릴열도 남부에서도 연어 치어 방류가 한창이며, '유즈노쿠릴스크 어류 양식장'도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오제로 라군노예' 업체는 지난해 처음으로 호수에 수중 어류 정원을 설치해 치어 양식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비를 갖추고 양식한 가운데 이번엔 1,260만 마리의 연어 치어 방류를 준비하고 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9월에 교육포럼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딘 시장과 '에브리카'교육정책연구소 알렉산드르 아담스키 소장이 9월 22일 - 2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교육 포럼을 확정했다. 올해 포럼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페르미, 워로네즈, 블라고웨렌스크 등 러시아 각 지역에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교육 포럼은 이미 명성이 높아져 있으며, 올해 포럼의 풍성한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성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포럼의 일환으로 상호작용 및 토론장이 열리는 가운데 학생들은 강연을 듣고, 다양한 활동교실에 참가하며, 교육 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알아볼 수 있다.  
올해 교육단체와 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행사는 학생들의 자연과학 교육을 주제로 특히, 물리학의 대중화에 더욱 치중할 예정이다.

<p>새고려신문</p>	<h2>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b>581루블리 52코페이카</b>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p>	 <p>(편집부)</p>
--------------	---	--

6월 19일 러시아 의료인의 날을 맞아

# 최고의 외과 의사로 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리영호 전문의

작년부터 신문지상에 소개하려고 했던 리영호 의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섭외가 매우 어려웠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안쿠지노브 병원의 외과 의사 리영호(이영호, 리 알레리 표도로비치, 1958년생)씨는 2021년 9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

훌륭한 외과 전문의로 인정받은 리영호 의사가 활동한 지 40주년이 되어 시두마(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명예시민으로 추천했다. 이때 우리는 바로 이 전문의를 꼭 신문지상에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코로나19 확산 격리문제로 의료진들과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고, 무엇보다 겸손한 성품에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였으나, 마침내 화요일 저녁에 겨우 만날 수 있었다.

리영호 씨는 자기 직업에 자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환자들이 완쾌되는 걸 보며 그 기쁨에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가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어린 시절, 9학년 때 그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앓고 계신 부모님, 특히 자주 병에 걸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앞으로 의사가 되어 부모님을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에서 그는 항상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 학교 졸업장에는 '5점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졸업할 때 '금' 졸업 메달이나 '은' 졸업 메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 1975년 시기에는 아직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대였던지라 당연히 메달리스트가 되어야 했는데도 빨간색의 우등 졸업장 대신 회색의 일반 졸업장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대 의대에 입학 원서를 접수할 때 의심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학업 증명서에는 모든 과목이 '5점'뿐인데 졸업장 색깔이 최우등생 졸업장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가 우등을 했던 꽤 많은 경시대회의 감사장, 학교 각 반에서 최우등 성적 표창장 등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그가 블라디보스토크 의대에서 공부하는 6년 동안에도 계속 최우등으로 공부를 이어갔다. 의대에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리영호 의사가 의대 6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공부하기가 수월해졌다고 고백한다.

그는 비교적 말을 좀 아끼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당직 의사를 하고 나서인지라 바로 인터뷰를 하게 되어 피곤했을 법도 한데,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물으니 그의 말도 술술 풀렸다.

이야기 중 그가 대학을 택할 때 블라디보스토크를 택한 것도 아버지의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아버지 리병을 씨(1926년생)는 마카로브 구역의 고르노예 마을(리영호 씨의 고향) 제7탄광에서 일반 탄부로 일하셨다. 리영호씨가 4살 무렵, 아버지는 1962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기술공학 대학에 입학했고, 전공은 건설엔지니어였고, 공부는 통



신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가정에는 4명의 자녀가 있어 공부를 하면서 가정의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사실 그 당시 사할린 한인 중에서는 드문 사례였다. 게다가 그때 수십 명의 동료들이 입학시험을 함께 치렀는데 통과한 사람은 리영호 씨의 아버지 뿐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의 아버지의 교육열은 대단했다고 한다. 선대로부터 교육열이 뜨거운 집안이라 사실 리영호 선생의 자녀들(딸과 아들)도 의학을 전공하였고, 학교와 그리고 대학도 모두 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이 유즈노사할린스크 근처인 노워알렉산드롭스크 마을로 이사했다. 그 이유는 자습을 많이 해야 했었고, 전문적 지식에 관한 책, 기사 등을 주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리영호 씨가 의대를 졸업한 후 1981년에 사할린에 돌아왔다. 외과인턴을 마친 후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진료소에서 5년 근무했다. 당시 유

즈노사할린스크 시병원에서 당직(야간 당직, 또는 휴일 당직) 외과 의사로도 일하기도 했다. 5년 후에 그는 하바롭스크 의대에 입학하여 2년제 대학원 코스를 마쳤다. 대학원에서는 이론보다 실습으로 외과 진료를 배웠다.

하바롭스크에서 돌아온 후,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병원에 임직했는데 바로 그 당시 수석 의사(원장)로 있던 표도르 안쿠지노브가 그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1989년부터 리영호 선생님은 한 병원만에서 일해왔다. 그동안 의사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젊은 전문의들과 의료기술을 나누기도 하며, 사할린주 수석 외과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후보건부에서 여러번 받기도 했지만 그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의사란 직업이 그의 적성에 맞다고 한다. 그는 직업을 선택한 후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

"많이 피곤하시죠? 당직도 하셨는데"란 필자의 질문에 그는 "수술과 환자를 돌보는 거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싫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라고 토로했다.

그의 전문은 복부 수술이다. 현재는 물론 복강경 수술이 많아졌다. 수술은 보통 3시간 정도인데 얼마 전에 복강경 수술을 5시간 했다고 한다. 한 달에 환자 108명을 담당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115-118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한 달에 5-6번 당직도 선다.

성실한 외과 전문의로서 재능도 많은 그는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인정

과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다. 리영호 의사는 '러시아 보건 분야 공훈 의사' 칭호를 받았고, '러시아 연방 보건 우수 종사자', '러시아 연방 노동 배태량'이란 칭호도 받았다. 그의 수많은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

리영호 선생의 사생활에서는 그는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다. 1984년에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아내를 존경하고 있으며, 이제는 딸이 낳은 두 손녀들에 대한 애정도 넘쳐 늘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며 자주 보느니라 특히 3살의 막내 손녀가 할아버지를 자주 찾는다고 말한다.

"손녀들은 정말 삶의 기쁨입니다. 이들이 아프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라고 리영호 선생이 말한다.

시끄러운 것 보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리 선생의 취미도 시끄럽지 않다. 어릴 적부터 낚시(여름 강 낚시)를 즐겼는데 낚시 하러 갈 때는 조용히 혼자, 최대 2명이 가는 걸로 해서 가야 마음에 든다고 한다. 낚시를 하면서 여러 상념을 씻어내는 것이 최고인 듯하다.

리영호 씨는 자신의 성품이 그러하듯, 선량하고, 근면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선호해 친구로 하고, 약은 피를 부리는 것은 아주 싫어한다고 말한다.

러시아 의료인의 날을 맞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리영호 의사(알레리 표도로비치)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그가 하는 일과 가정에 성취와 번영과 행복, 강건함을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코르사코브의 전망대 실제 생태 계몽단지가 되다

코르사코브의 문화·휴식 공원(파르코와야 거리, 30) 전망대에 바다와 주변 환경 관광을 위한 생태 계몽단지가 생겼다. 전망대에는 잘 꾸며진 전망 장소와 바다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사할린주민들을 위해 여러 선물이 준비돼 있다고 부메랑 클럽이 전했다.

부메랑 홈페이지에서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 도전게임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게임 우승자들은 범고래 문양이 새겨진 다용도 가방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질문에 정답을 맞춘 참가자들 중 순위 30위까지가 우승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되는데 상품은 협력으로 나선 코르사코브 역사·향토박물관에서 배부한다.

도전게임 문제들에 따른 정답은 전망대와 또는 홈페이지 속 보충자료들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듣고, 동영상을 관람하며, 전망대에 대해 더 깊게 설명한 자료들로 알아볼 수 있다. 도전게임의 결과는 6월 25일 브콘택트 사이트 코르사코브 역사·향토박물관과 '부메랑'클럽 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생태 계몽단지는 '부메랑'클럽이 '바다의 친구들' 해양 동물 구조 단체와 대통령 장려금 지원 코르사코브 시공원과 공동으로 조성했다.

### Смотровая в Корсакове стала настоящим эколог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м комплексом

В Корсакове на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е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ул. Парковая, 30) появился эколог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комплекс, посвященный океану и его обитателям. Он состоит из красочных стендов, а также уличных биноклей с видом на море. А еще сахалинцам приготовили подарки, сообщает клуб «Бумеранг».

Победители квеста получают многоразовую сумку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осаток.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ойти квест «Погружение в морские глубины» на сайте и выиграть многоразовую сумку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косаток.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нут первые 30 участников, ответивших верно на все вопросы. Свой приз можно будет забрать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который выступил партнером.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квеста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тендах и 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ах к нему на сайте, где можно послушать аудиогид, посмотреть видеоролики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заметками, раскрывающими темы стендов более глубоко. Итоги квеста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25 июня на страницах в ВКонтакт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Клуба «Бумеранг». Комплекс разработан Клубом «Бумеранг» совместно с группой помощи морским животным «Друзья океана», Корсаковским городским парком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 사할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노트북을 선물해

<사할린 사람들의 선행 지도> 기획에 참가하는 자선가들이 사할린의 어린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선사했다. 노트북 기증은 아동들을 위해 놀이개발로 축제를 조성하는 '테조나' 학습센터에서 이뤄진 가운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우리 사업가들과 의회 의원들에게 있어 자선 행위는 단순히 제도적인 일이나 문화와 삶의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하여 무엇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사할린 사람들의 선행지도> 기획 덕분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할린의 가정들에게 고가의 기기와 교육 및 주택 수리를 위한 건축 자재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정부들은 순차적으로 취업, 유치원 입학 허가, 자질 향상과 같은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종종 이런 조치들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호전시키기 위해 충분하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이 거대한 기획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오늘 노트북을 선물받은 아이들 또한 성장하여 이와 같은 자선가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주지사가 강조했다.

노트북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돌린스크, 네웰스크, 홈스크, 아나와, 코르사코브의 아동 10명이 받았다. 노트북들은 '서비스 - 네웰스크 사무실 임대업체' 대표 안드레이 세레브류호브, '보안 시스템' 대표 알렉산드르 알요로브, 사할린주 상공위원회 회장 갈리나 드주바, '사할린 스트로이 알리안스'의 대표 이완 둘레신, '트란스트로이' 건축 생산 홀딩스 설립자 제니스 몰로드 쯔브가 제공했다. 또한 '예진나야 러시아 (러시아 통합)' 당의 사할린 지부 당원들은 아동들을 위한 책가방을 선물로 준비했다.

기념행사에서 아동들은 지적 도전게임(퀘스트)에 참가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로봇을 조작해보고, 퀴즈대회에서 지식을 뽐내며, 증강현실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습득하고, 방송 아나운서의 역할도 해보았다.

게임 참가자들에게 상으로 다과가 마련됐다.

아동들을 위한 행사는 '테조나' 학습센터의 소장이 조성했다.

<사할린 사람들의 선행 지도> 기획의 일환으로 주지사상 경연이 펼쳐지는데 참가 신청서는 10월 말까지다.

2021년-2022년 사회적 훈련이 검토되는 가운데 훈련 주관의 중요성을 주 정부 및 비영리 단체 대표들과 언론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문 경연조직위가 평가하게 되며 우승자와 수상자는 국민투표로 선정된다.

### На Сахалине детям из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подарили ноутбуки

Компьютеры юным островитянам передали благодетели, участвующие в проекте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Вручение техники состоялось в учебном центре «Тезона», в котором для ребят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аздник с развивающими играми. Собравшихся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8면에 계속)

### 사할린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근로 시즌 시작

약 300명의 청년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사할린의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러시아의 날에 대학생들에게 근로 취업증을 수여했다.

"사할린주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청년 기술 작업반'이라는 새롭고 특별한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런 기획을 지지해 준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지도자들과 고용주들 사이에서도 건축 작업반에 자신의 근로를 시작한 분들이 적지 않은데 현재 새로운 운동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주에는 여러분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여러분이 만들

어보고 싶은 삶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주지사가 말했다.

주에 총 45개 대학생 근로 작업대가 조직되었다. 근로 분야는 건설, 석유가스 분야, 어류 가공, 서비스 및 관광, 교육, 광업 및 농업 분야이다. 근로에 따라 임금도 받는데 각 회사별로 적정 임금이 있지만 월평균 임금은 3만5천 루블리로 근로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도 상승된다. 사할린주에서 청년 기술 작업대들을 조성하기로 한 결정이 2달 전에 채택된 가운데 이 기간에 구성원들이 만들어지고, 참가자들의 교육도 이뤄졌다.

### <사할린 귀국 동포 연대기> 출간 기념식 개최

6월 15일 안산 고향 마을에서 전국 사할린 귀국 동포 연합회 주관 하에 <사할린 귀국 동포 연대기> 출간 기념회가 개최 되었다.

<사할린 귀국 동포 연대기>는 사할린 동포 강제 징용 후 영주 귀국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22년 까지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영주 귀국하여 각 지역에서 대표로 계신 분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해 주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공동대표 (출처: 금요저널)

### 김해 장유3동, 사할린 동포 어르신 위한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개최

10일 율하체육관서 열려, 400여명 참석

소통·화합의 장

김해시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는 10일 율하체육관에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과 동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할린 어르신을 위한 고향마을 보급자리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순중)가 주관하고, 장유3동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한마당 잔치는 사할린 어르신의 고국 정착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화합의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사진전 '귀환, 그 후',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건강체험관, 트롯·민요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사할린에서 장유3동 까지의 여정을 그

린 토크콘서트, 주민들의 끼와 재능으로 뭉쳐진 다양한 재능 기부 공연 등으로 치러졌다.

사할린 어르신들은 2009년 10월부터 김해시 장유3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101명이 영주 귀국하여 현재는 82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오철암 사할린 한인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행사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고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장유3동 관계자는 "사할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단체가 힘을 보태겠다"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해뉴스)

###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 월례회 갖고 추후 진행방향 논의

광주고려인마을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홍우표)는 지난 10일 월례회를 갖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고려인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홍범도공원 조성 일정 및 홍상 제작을 위한 평가단의 입찰 결과, 추후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 위원들은 "홍범도공원 조성을 통한 고려인 마을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역사 마을1번지'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천만시대를 이끌어갈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효민 권한대행 회장을 비롯한 공병철 광산구의원, 김동헌 이용민 국회의원의실 보좌관, 최창인 월곡 달빛문화탐방 대표와 정진산 회장, 장원창 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차노희 광주대 교수, 유희권 광산구 새마을협의회장, 이미자 광주 사랑의배움터 교장, 그리고 송주영, 최경화 마을해설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이용민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광산구와 광주시의원, 광산구의원, 월곡2동 마을대표, 고려인 마을 지도자, 남양 흥 씨 중앙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월례회를 갖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고려인마을 제공]

종 친회, 달빛마을 해설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인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홍범도 공원 조성추진위원회 발기인 발대식을 갖고 다모아 어린이공원 내 장군 홍상 조성과 함께 공원 이름을 홍범도 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추진위원회는 전국 각계 인사를 비롯한 전 국민 대상 홍보 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8월 15일 홍범도장군 홍상 제막식을 갖고 기념식과 함께 봉오동 전투 재현 등 다양한 기념 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 [신PD의 K 리포트]

### 'Costa Rica의 압박'... 그후 20년

이 사진을 바로 알아봤다면 40대 이상일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큰 웃음을 주며 널리 회자됐던 사진입니다. 뭘지 모르는 '젊은 세대'를 위해 힌트를 주자면, 코스타리카에서 온 월드컵 취재진 사진입니다. 'Costa Rica의 압박'이라는 문구에서 사람들은 '압박'이라는 글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Press of Costa Rica'에서 'Press'를 잘못 번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번역했으면 '코스타리카 취재진' 정도가 맞았을텐데 누군가 그냥 직역을 했나 봅니다. 지금 구글 번역기에 입력하면 '코스타리카 언론'이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한국말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웃픈' 일이 있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지금 이런 영터리 한국어 번역을 해놓았다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단지 인터넷 번역 능력이 좋아져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한국어 사용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어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는 한류 팬들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무수한 비난 댓글이 달릴 겁니다. 자료를 보니 2021년 6월 기준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가 82개국 234개소라고 합니다. 2007년 3개국 13곳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공부하는 외국 학생 숫자도 2007년에 740명에서 작년 기준 8만여 명입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공기관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당연하게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한류 덕분입니다. 'Press'를 '압박'으로 오역하던 2002년 이후 지금까지, 한류 사례 굵직굵직한 것들만 나열해도, <겨울연가>, <대장금>, <태양의 후예>,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이 있고, 또 인물 중심으로 보아, 싸이, 블랙핑크, BTS, 송강호, 박찬욱, 봉준호, 윤여정 등등...대충만 써도 이렇습니다. 장르도 K팝, K드라마, K푸드, K게임, K웹툰 등 문화 항목 대부분을 포괄합니다. 여기에 한국어도 애정하는 대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영화, 가요, 드라마 등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 맞지만, '한국어' 자체가 한류 탐구의 주요 수단이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를 들겠습니다. 'italki'는 개인 간에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6월 13일 기준 한국어 강사 숫자가 410명입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언어 강사 숫자를 보면, 프랑스어 1,268명, 독일어 653명, 아랍어 449명입니다. 해당 언어 사용 총인구수를 보겠습니다. 프랑스어 3억명, 독일어 1억2천만명, 아랍어 3억명. 한국어 사용인구는 재외동포 포함 7천7백만명입니다. 3억명이 쓰는 프랑스어 강사가 1200명이고 한국어는 사용 인구 7천7백만명에 italki에 프로필 올린 강사가 410명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learn Korean'으로 검색하면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조회수 1~2천만 건 넘는 것이 있고 1백만 넘는 것도 다수입니다. 그만큼 전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진심입니다.

미국 명문 공대인 조지아텍에 딸을 유학보낸 제 친구는, 현지 외국 학생들이 자기 딸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거나, 영어로 뭔가를 적어주며 한글 손글씨로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한류 콘텐츠와 연관된 지역들(강남, 제주도, 대학교, 강원도...)에 가봤냐고 물으며 배경으로 선택된 이유를 물어보았답니다.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면 외국 학생들이 마치 논문지도 받는 학생처럼 집중해서 듣는다는군요.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대와 관심에 난감해진다고 합니다.

조지아텍에 유학을 간 제 친구 딸처럼, 해외 거주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학생처럼 잠시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면 오랫동안 현지에서 살고 계신 동포분들을 향한 호의 담긴 관심은 더 클겁니다. 동포분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역사를 듣고 싶어하며, 한복, 젓가락, 김치, 서울, DMZ, 제주도 등등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와 동포분들은, K팝 가수들이나 K드라마 주인공들과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기에,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믿기 때문에 한국어와 우리 역사, 문화 지식에 대해 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발음하고 쓰는 대로 따라서 쓸 것입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역,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설명해주는 대로 이해하고 사실로 믿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맞춤법을 잘 지켜야 하며,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민족 일원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의 관심과 기대로 책임감과 부담이 따라옵니다.

KBS 한민족방송을 꾸준히 들으면 이런 기대에 답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말토고 마음트고>, <서울말 따라잡기>에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우리말을 익힐 수 있고, <라디오 극장>,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KBS 무대), <라디오 문학관> 같은 프로그램들에서는 수준 높은 실전 한국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역사 공부도 물론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탄생부터 사할린 동포와 인연이 깊은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가 없겠죠. 이외에도 시사, 문화, 경제, 음악 등을 고루 갖춘 한민족방송 채널은 종합 지식 세트로 준비돼 있습니다. KBS 콩앰 (https://radio.kbs.co.kr/kong.html)을 쓰면 한민족방송을 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더욱 공들여서 잘 만들겠습니다. 동포분들께서는 KBS 라디오 들으셔서 지식 잘 쌓으셔서 신뢰 받는 '한류 해설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신PD의 K 리포트]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원섭 (KBS 라디오 제작국장.shinwonsup@kbs.co.kr)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Неде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Сахалинское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приглашает на "Неделю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с 17 по 24 июня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еде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стартует с новинки — зрители увидят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Ли Сан-ёна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2" (2022). Далее в программ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лучшие 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2016-2020 годов, такие как, «Паразиты», «Поезд в Пусан 1», «Поезд в Пусан 2», «Незванный гость», «Избави нас от лукавого». Билеты уже в продаже, передает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НЕДЕЛЯ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17-24.06

КИНОКОНЦЕРТНЫЙ ЗАЛ «ОКТЯБРЬ»

17.06	<b>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2</b> (16+, боевик, криминал, триллер, 106 мин., 2022)
18.06	<b>Паразиты</b> (18+, драма, комедия, 132 мин., 2019)
19.06	<b>Поезд в Пусан</b> (18+, боевик, триллер, хоррор, 118 мин., 2016)
20.06	<b>Незванный гость</b> (18+, детектив, триллер, 102 мин., 2020)
21.06	<b>Пылающий</b> (18+, детектив, драма, триллер, 148 мин., 2018)
23.06	<b>Поезд в Пусан 2</b> (18+, триллер, ужасы, боевик, 116 мин., 2020)
24.06	<b>Избави нас от лукавого</b> (18+, боевик, криминал, триллер, 111 мин., 2020)

## 4 июня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обслужил рекордное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4 июн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обслужила 40.833 пассажир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эропорта,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 3 марта 2020 года, когда в РК началос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андемии COVID-19. Увеличение частичн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первые в июне выходные дни продолжаются три дня, поскольку 6 июня отмечают День памяти павших за родину. 5 июня аэропорт обслужил около 40 тыс. человек, а 6 июня – 33 тыс. человек.

KBS World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И учёба, и удовольствие: сахалинцы учились готовить лопух по-корейски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в том, что в субботу небо затянулось свинцовыми тучами, накрапывал дождь. Главное всего — хорошая погода в душе. Особую солнечную атмосферу сегодня создали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убботу всех желающих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учили готовить лопух по-корейски.

Для закоренелых островитян сахалинский лопух, как и солёные огурцы, уже давно и уверенно вошёл в рацион. Его заготавливают на зиму, солят. Он полезен и богат разными витаминами. Главное, успеть срезать дудки белокопытника с мая по июнь, пока те молодые и сочные. Он не имеет ничего общего с обычными лопухами,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в средней полосе нашей страны. Большие размеры растения однажды удивили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когда классик отеч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оехал за приключениями на Сахалин. Особо он восхитился ночью, именно под сиянием звёзд они ему казались фантастическими. Листья словно зонтики, под ними можно укрываться от осадков, а стебли вымахивают до 2-3 метров.

«Этот дикорос помог на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годы войны и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когда был голод. Почему лопух?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такой лопух произрастает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Он, безусловно, есть и в Корее, в средней полосе России, но он не такой гигантский, как у нас», — сказала в интервью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Хоть лопух и прозвали подножным кормом, но его, как калужницу и папоротник, люди собирают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готовить блюдо так, как это делают корейцы, безусловно, не получится, но всё, что сделано собственными руками, всегда достойно похвалы и очень ценно. Мастер-класс почти для тридцат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е заглянули 11 июня в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ровела профессионал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орейских салатов Светлана Хан. Тётя Света советовала начинать их делать с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А вот секрет вкуса так и не раскрыла, говорит, что всё дело в интуиции, корейцы добавляют приправы в лопух на глаз. Накануне сотрудники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ый и организовал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и сырец в районе села Огоньки, неподалёку от реки, вдали от дорог. Свежий продукт вымочили и отварили. Оставалось его только очистить от кожицы и нарезать. Предваряли прекрасные хлопоты национальным корейским танцем. Только затем все взялись за ножи.

«Мы пришли сегодня с дочкой в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на праздник лопуха, чтобы научиться готовить корейский салат. Научу и дочку, и сама буду потом готовить дома. Мы очень любим корейские салаты. Только что рассказали, как его варить. Сначала нужно опустить в горячую воду, потом перевернуть, вынуть и опустить в холодную воду. Тогда лопух можно будет чистить легко», — подчеркнула участница вкусного и познавательного мастер-класса Маргарита Ласковая.



Массовое кулинарное шоу проходило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там, где обычно борц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техничные броски. Здесь расставили столы, обеспечили гостей сковородками, газовыми плиткам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дали лучку дойти до золотистой кондиции, в ёмкость устремились и кусочки лопуха. На столе мы заметили чеснок,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соль, сахар, перец красный и вкусовую приправу «Дашида» (бывают со вкусом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ли говядины). Вы, конечно же, спросили бы: «А где же соевый соус?» Чаш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его не добавляют, чтобы не испортить цвет.

Каких-то пара минут и блюдо было готово, больше томить на огне нельзя, иначе бы лопух потерял свой немного хрустящий эффект. Тут и рис поспел в кашеварке, он сварен по-восточному, на воде без добавления соли. Оставалось снять пробу. Подтверждаем, вкуснотища. Ну а все, кто сегодня выступил в роли поваров, смогли взять домой приятный и ароматный бонус, как раз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настоится, пропитается.

(Игорь Антипов,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 Ким выразил поддержку Путину по случа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России

Сеул, 13 июня – ИА РУСКОР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в воскресенье выразил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несмотр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е осуждение, сообщ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траны.

«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 добился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дела защиты достоинств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ей страны ... преодолевая всевозможные вызовы и трудности», — говорится в послании Ким Чен Ына Путину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официальное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оказывает ему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Очевидная ссылка Кима на спец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как на «справедливое дело» для защи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последним знаком, который иллюстрирует тесн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хеньян подчеркивает свои тесные связи с Москвой, несмотря на растущую критику со сторон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связи с российской спецоперацией в Украине.

Ким Чен Ын также выразил убеждение, что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будут и впредь укрепляться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и на «пути к отстаива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обеспечению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2019 году Ким провел свой первый саммит с Путины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зывает усили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оборон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призвал к «более строгим мерам самообороны» для решения «очень серьёзных»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призыв прозвучал в выступлении Ким Чен Ына на Пленуме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проходившем в Пхеньяне с 8 по 10 июня. На пленуме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право на самооборону является вопросом защи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Оно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сегодня, когда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находится под угрозой, и ситуация может ещё больше усугубиться. На пленум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хранить принципы и стратегии в борьбе с врагом» и в области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Упомянулись ли на пленуме пла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вести ещё одно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не сообщается. Не было озвучено также никаких важных сообщений в адрес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Хотя пленум был посвящён внутренним вопросам, в том чис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экономики и борьбе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о каких бы то ни было достижениях также не сообщается. Пленум утвердил ряд новых кадровых назначений. Так,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азначен Чхве Сон Хи,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Ли Сон Гвон переведён с должност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а должность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Единого фронта. Данный орган занимается межкорей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Начальником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назначен Ли Тхэ Соп, а начальником Главного политуправления - Чон Гён Тхэк.

## В РК начинаются комплексные учения по обороне «Хваран»

13 июн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начали ежегодные чётрёхмесячные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полицией и пожарными в рамках усилий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обороны. По сообщению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чения «Хваран» начались в городах Пусане и Ульсане. Они продолжаются там 5 дней. После чего пройдут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в провинциях Чолла-Пукто, Чхунчхон-Пукто и Канвондо. Учения проводятся в строг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рекомендациями по охране здоровья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 Традиционные фабрик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лкоголя превращаются в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фабрик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лкоголя привлекают внимание как нов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2 июн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телепрограмме KBS. Корреспондент посетил фабрику, расположенную в селе Пульжон-мён уезда Квэс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На ней производится корейская рисовая брага макколли. Фабрика, источающая сильный аромат рисовых дрожжей, работает с 1939 года как семей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оставаясь таковым по сей день. Внучка основателя фабрики госпожа Ю Ги Ок унаследовала семейный бизнес и сохранила уникальный вкус традиционных макколли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ёх поколений. Стар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могает в изучении истор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одали документы на регистрацию фабрики в качестве культурного достояния. «Мы должны сохранить нашу фабрику, чтобы люди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прошлого, верно? Если мы модернизируем производство, фабрика утратит свою ценность», — сказала в интервью владелица фабрики госпожа Ю Ги Ок. Как сообщает KBS, по мере снижения спроса на макколли мног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фабрики принимают различные мер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туристов, организуя культур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 фабрике в селе Ивон-мён уезда Окчх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сосуществуют уже 90 лет.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готовить алкогольную продукцию из рисовых дрожжей и листьев лотоса, упаковать и забрать домой.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эту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намерением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треблению наше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 говорит владелица фабрики господин Кан Хён Чжун.

## Журнал TIME представил список лучших K-POP песен и альбомов 2022 года

7 июня журнал TIME опубликовал объявил список лучших K-POP песен и альбомов первого полугодия 2022 года. В него вошли песни Devil Макса Чанмина из группы TVXQ, Maniac группы Stray Kids, Love Dive группы IVE и другие. В список лучших альбомов вошли Psy 9th известного певца PSY, INVU певицы Тхэён из группы Girls' Generation, Face the Sun группы Seventeen и другие. Журнал отметил, что уров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K-POP не пошатнулся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COVID-19, высоко оценены последние альбом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страды.

(RKI)

## Кимчхи хороша с салом: Сеул втягивается в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Южная Корея близка к тому, чтобы стать «оружейным складом» для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снабжают оружием и боеприпасами Украину.**

До сих пор Сеул занимал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йтральную позицию в отношении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отказываясь поставлять вооружения и боеприпасы Киеву. Но эта позиция меняется на глазах. Под давлением США и некоторых союзников по НАТО, а также в связи с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нового, куда более проамерикански настрое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начинает выступать в качестве ещё одного поставщика оружия Украине. При этом Сеул намерен действовать не напрямую, а через третьи страны, надеясь тем самым избежать негативной реакции Москвы. Как бы то ни было, реальность такова,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оступят или уже начали прибывать на украин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 Не сухпайком единым

Как ожидае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займет еще более активную проукраинскую позицию на саммите НАТО,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Мадриде 29–30 июня. Туда республику пригласили в числе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не входящих в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ий альянс, но при этом близких к Вашингтону. Возможная смена курса в отношении Украины вызвала беспокойство в дел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РК, а также среди прост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что Сеул не должен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конфликте за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от них. Кроме того, в РК опасаются, что Росси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анесет «ответный удар», возобновив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е и обор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Это выведет военную угрозу КНДР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на совсем иной уровень, и в целом о стаби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можно будет забыть.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Украиной наблюдается повыш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Украины Дмитрий Сенник завершил визит в Сеул, а на Украине побывал глав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ила народа» Ли Чжун Сок. Он пообщал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ины, а затем и лично с главой республики Владимиром Зеленским.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назад южнокорейскую столицу с тайным визитом посетила делегация депутатов Верховной рады. Наконец,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апреля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Украины провел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со сво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ой Со Уком, а 11 апреля Зеленский через видеосвязь обратился к депутатам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РК.

Кроме того, украинская тема активно поднималась и в ходе визита Джо Байдена в Сеул 20–22 мая. Параллельно зам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К Син Бом Чхоль 23 мая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оенных ведомств 47 стран,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где также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оказания воен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держивалась твердой линии в отношении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Сеул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санкциям Запада против Москвы,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стремился быть в первых рядах противников РФ и не вводил собственны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естрикций.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не торопятся покидать Россию. Что касается помощи Киеву, то Южная Корея поставляла Украине либо продукцию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типа аптечек, сухпайков, одежды и палаток, либо элементы обмундирования — шлемы, бронезилеты. При этом, несмотря на активные просьбы и дав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как самого Киева, так и стран НАТО во главе с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отказывалась передавать Украине «летальную продукцию» —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Хотя южанам есть что пред-

ложить Киеву. Судя по утечкам в СМИ, Киев положил глаз на переносные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е системы, а натовцев интересует куда более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вооружений — от снарядов до танков и БТР.

### Сеул меняет ориентацию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который принес присягу 10 мая, при каждом удобном случае подчеркивает ориентацию на США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оординац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хоже, «смена вех» делает свое дело. Южная Корея по-прежнему не хочет напрямую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но после серии консультаций склоняется к опосредован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полагая, что Москва это «проглотит».

Южная Корея близка к тому, чтобы стать «оружейным складом» для те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снабжают оружием и боеприпасами Украину. Схема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ая: Сеул поставляет оружие и технику какому-то другому государству, которое передает их Украине. Формаль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и при чем, так как направляет оружие не напрямую украинцам, а третьим странам. А что это оружие в итоге оказывается на Украине 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отив России, то у Сеула есть оправдание: мол, там об этих манипуляциях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а если и знали, то не могли повлиять».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даточных звеньев цепи готовы выступить Польша и Канада — одни из самых активных поставщиков оружия Украине. Кстати, именно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их собственные арсеналы уже изрядно истощились.

Сеул пока не сказал окончательное «да». Но, как сообщают местные СМИ и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амерено одобрить поставки в Канаду около 100 тысяч единиц 155-миллиметровых снарядов, а в Польшу могут уйти скорострельные гранатометы, пулеметы. Кроме того, по итогам недавнего визита в РК минист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Польши Мариуша Блащак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сшире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ьских самоходных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установок (САУ) AHS Krab. Они созданы на основе извест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АУ K-9, использующей, кстати, 155-мм снаряды.

Ранее Польша заявила, что уже поставила 18 установок Krab на Украину. А потому несложно догадаться, куда отправят новые установки, чье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рейцы помогут ускорить. В дальнейшем речь пойдет уже о производстве танков и бронетранспортеров.

Сеул всячески пытался избежать огласки конкрет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но шила в мешке не утаишь.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источников поступает примерно одна и та же информация. Она подтверждает: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через страны-посредники подключиться к поставкам оружия и боеприпасов Украине.

Очевидно, Сеул оказался под сильным давлением.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РК на прямые вопросы отвечают уклончиво и кивают на то, что оружие — даже если поставки и впрямь состоятся — не будут напрямую поставляться Украине. Однако известно, что страна-производитель оружия обычно оговаривает услов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воих поставок, особенно возможность их передачи кому-то еще.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отмечают, что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Киеву, даже опосредованные, грозят «вернуться бумерангом» в виде прямой угрозы для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даже во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РК.

Тот же визит 36-летнего главы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Ли Чжун Сока на Украину встретил сильную критику среди более опытных членов партии.

Сложно понять, зачем нам встревать в конфликт, который идет за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от нас... Нам не стоит принимать чью-либо из сторон.

(Оконча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 **581 руб. 5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PP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паспорта юным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День России.

– На вас, ребята, мы возлагаем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что вы продолжите дело ваших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родителей. Будете бережно относиться к своей родной земле, добиваться успехов, которые принесут пользу Росси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мы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м вас в начинаниях: в получении образования, интересной работы с достой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ой, решении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реализации бизнеса и твор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чтобы раскры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и сделать жизнь такой, какой вы хотите ее видеть, – обратился к молодым людя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радиционно главными лицами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стали молодые граждане, достигшие значите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учеб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спортивной, научной, культу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еница 8 класса средне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 1 поселка Тымовское Полина Ким отлично учится и проявляет актив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Девушка была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акций «Свеча памяти», «1418 шагов к Победе», участвовала в сборе и отправк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жителям Донец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Егор Повлятенко из Корсакова активный спортсмен. Юноша имеет третий спортивный разряд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член сбор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рья Левченко из Холмска показывает отли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изучении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евушка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ась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ов по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 Несмотря на юный возраст, каждый из вас уже доказал, что сво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может сделать сильнее свою малую Родину,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её процветанию и успеху. Желаю вам воплощения всех ваших надежд, уверен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всех намеченных планов, а также чест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нностей, которые теперь возлагаются на вас, как на граждан России,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кретар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меня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ют. Приятно сегодня находиться здесь среди своих свер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тоже достигли боль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И, конечно же, очень трогательно в этот праздничный день получить свой первый гражданский паспорт, – сказала в ответном слове учащаяся 7 класс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СОШ №20 Юлия Петруня.

Танцевальный подарок всем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преподнесли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листы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луба «Фантазия».

## Лучшие проекты по развитию Росси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брали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Сильные идеи дл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Жители и организации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инициативы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Сильные идеи дл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Из 60 полученных проектов-заявок эксперты отобрали 12 лучших. 10 июня авторы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идеи экспертам.

–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АСИ) и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открытый поиск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и практических идей. Главное, что это ещё и поиск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ют и при нашей поддержке смогут реализовать реш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нашей страны,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В этом году инициативы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по 7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циаль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кадровы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идеи по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другие нестандар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Мария Гурьянова, директор ООО «СКЦентр» предложила проект «Био Техно Кластер» для комплексной углубл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переработки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по принципу безотходной технологии, с повышающи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 циклом. Проект име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и готов к отраслевой экспертизе.

Организовать социальные трудовые отряды для помощи одиноким пожилым людям предложил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лона Волошина. Для успеха проекта необходимо изменить формат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и преддипломной практики студентов 3-4 курсов, привлеч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а помощ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итогам оценок экспертов и отраслевой проверки 10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представя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Напомним, что первый форум «Сильные идеи дл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прошел в ноябре 2020 года. Из 15 тысяч идей экспертами были отобраны 1000 идей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проработки, 828 идей заручились поддержкой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592 предложения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ли

акселерационную программу форума. В дальнейшем 100 лидеров идей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для участия в ПМЭФ и ВЭФ. Более 80 идей легли в основу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АСИ.

## 12 семей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отметили новоселье

Сегодня на Кунашире ключи от нов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овременную трехэтажку возвели на улице Океанской, 14а.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новосельем. Желаю, чтобы в ваших новых квартирах царили тепло, поддержка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что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Кунашире и Шикотане сдали более 1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 это 12 домов, 168 квартир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 сказал мэр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авел Гомилевский.

Квартиры в новостройке сданы «под ключ». В помещениях предусмотрели современный ремонт, установили сантехнику и электроприборы. Во дворе установили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трехэтажки выполнил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место для возведения объектов.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множество факторов, в том числе – сейсмо и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Застройщик справился со всеми задачами и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возвел дом,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ов.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лидеров по вводу жилья. Мы не планируем сбавлять темпы, 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стоит амбициозная задача – ввести не менее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Это социальное жилье, арендное, коммерческое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переселенцев – жильцы местного общежития, построенного в 1960 году.

– Сегодня у меня начинается новая жизнь. Испытываю огромную радость. Дом очень хороший, красивый. А лично мне повезло вдвойне – из окна моей квартиры открывается чудесный вид на море и вулкан.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строителей за проделанную работу,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Христенко.

– Наше общежитие было в ужасном состоянии. Как хорошо, что оно осталось в прошлом. Счастье наконец-то свершилось. Дом построен изумительно. Застройщик постарался – учел все наши замечания,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Венера Кошелева.

Возведение новых домов для жителей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Так, на Шикотане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селах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и Крабовозовское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129 новых квартир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а Кунашир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строят 96 квартир.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 позволило региону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Фонда ЖКХ.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этих средств будут улучшены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т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уже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 2021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почти 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2022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езд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о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около 3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читал администрацию Корсакова за отставание в ремонте дорог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совеща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вопросам выполнения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е справилась с поставленной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задачей – выполнить основную часть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к 12 июня, ко Дню России.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из 500 выявленных с помощью волонтеров и жителей дефектов ликвидировано лишь 74.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читал районну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а также поручил областному минтрансу разобраться в причинах произошедшего. Кроме того, губернатор потребовал выполнить работы по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Они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до 23 июня.

По словам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Валерия Спиченко, отставание от графика произошло из-за неисправности спецтехник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напра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машин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из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котором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дорог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ен.

–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к нашему общему делу – недопустимо. Виновные должны быть наказаны. У вас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времени на подготовку к этой работе и её выполнение. Мы даем вам финансовые ресурсы, и вы должны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в дорожном хозяйстве. От этого зависит не только комфорт, но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Сейчас нужно мобилизоваться и в кратчайший срок завершить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дорог, не жатывая при этом качеством. Проследу за этим лично, –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к мэру Александру Ивашову и министру транспорта Валерию Спиченко.

Также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недель работы будут вы-

полнять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а, где вовремя приступ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и не позволили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Так, до 1 июля ремонт завершат Тымо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и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ах. До 15 июля – в Охин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С лучшим результатом с работой справилась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6,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 это на 2,5 тысячи больше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Всего на дорог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ликвидировано 3,3 тысячи ям. При этом 1,5 тысячи дефектов устранено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Напомним, в 2021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был выполнен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Благодаря передаче охинской трассы в вед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у высвободились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 на приведение в порядок местных дорог направили в 6 раз больше средст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ямочным ремонтом охватили 101 тысячу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лотна. Специалисты дорожных служб формировали техническое задание с помощью цифровой карты,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и волонтеры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 принимали работы. В этом год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на 20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капитальных и текущих работ на островах буде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105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 Рег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возглавил сахалинец Роман Остапенко

Кадров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приступил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15 июня.

Роман Васильевич Остапенко род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2 января 1979 года. Окончил ряд вузов: Академ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МЧС России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юрид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МВД России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а также Иркутскую высшую школу МВД России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ВД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жар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В 2021 году защитил диплом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Имеет более чем 20-летний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опыт по основному профилю. Прошел трудовой путь от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пожарной части № 1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и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каз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Управление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ные задачи, поставленные губернатором перед новым главой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это защита от пожаров,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 забота о природе.

## 35 семей в Невельске отметят новоселье в этом году

Пятиэтажный дом строят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за счет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Объект готов более чем наполовину.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дания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роители уже возвели коробку и крышу, вставили окна. Сейчас ведутся внутренние работы –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перегородки, монтируется электропроводка. В пятиэтажке будет 20 однокомнатных, 10 двухкомнатных и 5 тре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Ключи от них получат в том числе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 Мы строим жилье в регионе форсированными темпами и используем для этого различные механизмы.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дом возводит частный застройщик за свои средства, затем мыкупаем у него квартиры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Важно, чтобы все работы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качественно и в срок,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еньг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вартир для невеличан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150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переедут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Напомн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 позволило региону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Фонда ЖКХ.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этих средств будут улучшены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т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уже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почти 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2022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езд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о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около 3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이용수 할머니 면담... "위안부" 잊지 않을 것

파비아 살비올리 유엔(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이 할머니,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한국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기 위해 이번에 공식 방문하게 됐다"며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절대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에 이 할머니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에게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고 와줘서 참 고맙다"며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약 한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뒤 오전 11시께 나온 이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들이 11명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일본이고 한국이고 할머니들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 한스러워서 이제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절차를 밟으니 해결에 힘써달라고 했다"며 울먹였다.

할머니와 동행한 이 이사장은 "면담 자리에서 특보의 성격인 진실, 정의, 배상 원칙에서 (과거사 해결이)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않은 현재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2015년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 공식화, 극우단체의 수요시위 방해,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국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일본군 성노예제, 일제 강제동원, 사할린 강제동원, 제주 4·3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대표적 과거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살비올리 보고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방한 결과 보고서는 2023년 9월 제 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과 해결 노력 관련 자료 수집, 모범적인 관행을 발굴하고 권고를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지난 2018년 5월 임명돼 활동 중이며 이번 방한은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첫 공식 방문이다.

이날 그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이 할머니와 이 이사장을 만났다. 이후에는 1970년대 해외입양 당사자들, 제주 4·3 유족, 강제징집노획화사업 피해자들 등을 접견했다. **[서울=뉴시스]**

## 김치 хороша с салом: Сеул втягивается в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И вообще надо очень осторожно подходить к вопросу хотя бы по той причине, что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нам очень нужн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и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написал в соцсетях вице-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Чон Чжин Сок,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ся одной из близких к президенту Юну фигур.

Политик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идею Ли Чжун Сока поехать на Украину без энтузиазма восприняли в МИД 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Там заявили, что поездка Ли в Киев организована как его персональный визит по партийной линии и не имеет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Ли отказали в статусе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Никаких личных писем от президента Юна Владимиру Зеленскому не передавали», — настаивают в Сеуле.

Другой депута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Ли Ин Чже настаивает, что Ли Чжун Соку «нужно думать и действовать, исходя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Кореи», а не из личных предпочтений. Поездку Ли он назвал «поездом, в котором заложена бомба под 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Кореи».

**Разве Россия - враг для Кореи?**

Бывш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дипломат, специалист по России, а ныне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евроазиатской стратегии Пак Пён Хван раскритиковал планы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поехать на саммит НАТО в Мадриде. «Вызывает большие сомнения, что поездк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 саммит Альянса отвечает наш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Судя по всему, цель приглашения Коре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 добиться ее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в украинском вопросе. Сначала Корея твердо заявляла, что не будет поставлять Украине летальное вооружения, но с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 Сок Ёля этот подход стали пересматривать», — заявил эксперт изданию Pressian.

Может быть, Россия и враг для

США, но является ли Россия врагом для Кореи? На этот вопрос сложно ответить утвердительно. Но вызывает опасения, что мы сами своими руками 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превратиться во врагов России, — констатирует Пак Пён Хван, долгое время проработавший в России.

На обывательском уровне обычные корейцы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оказ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но также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военных поставок. Некоторые политически подкованные граждане подмечают, чт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Киев допустил прояпонск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по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для корейце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чем не на шутку возмутил их.

Так что Сеул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до определиться: стоит ли идти на такой риск ради далекого от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фликта. Голоса против поездк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в Мадрид на саммит НАТО все громче звучат и в его собстве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ервый зарубежный визит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имеет большое 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 этой связи мы изучаем, подходит ли для этой цели саммит НАТО или нет и отвечает ли эта поездка наш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в целом, —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источник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Точно так же счита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им Бюн.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сеульском Институте Асан он признал: «Страны — участники НАТО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 как ими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российскую и китайскую угрозы“. Это будет главная повестка саммита. Очевидно,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речь пойдет и о военных мерах. Если наш президент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это может быть воспринято как наша офиц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В этой связ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надо очень осторожно подходить к вопросу о поездке в Мадрид».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  
(Источник: NEWS.ru)

## [기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묘를 복원하라

애국지사묘역 108호에 1970년 조성됐다가 2009년 멸실된 최재형 선생의 묘를 복원하라 최재형 선생은 독립운동의 태동지 연해주 항일독립운동의 대부였고 한인들의 폐치카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는 제67회 현충일을 앞둔 지난 5월 25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08호에 1970년 조성됐다가 2009년 멸실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묘를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서한 및 자료를 새 정부 대통령실에 보냈다.

또한 최재형 선생의 후손들과 함께 SNS를 통해 최재형 선생 묘 복원에 대한 국민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4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안중근 의사 홍보대사들도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08호는 원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묘였다. 1970년 11월 17일 묘 조성 당시 후손으로 등록된 사람은 가짜 후손 최규흠이었다. 최재형 선생의 후손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당시 철의 장막이라 일컫던 소련에 살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야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1995년에 독립운동가 후손조청사업으로 최재형 선생의 막내딸 최 엘리자베타와 손자 최 발렌티이 한국에 왔고, 그 후 최재형 선생의 후손으로 등록됐던 최규흠과의 DNA검사를 통해 최규흠은 가짜후손으로 밝혀졌다. 가짜후손 최규흠은 사망할 때까지 무려 10여 년이 넘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던 것이다.

2004년에야 비로소 최재형 선생의 막내딸 최 엘리자베타가 보상금 수급자로 등록됐고, 2005년 최 엘리자베타의 사망으로 손자 최 발렌티이 이어받았다.

2006년 최 발렌티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안내를 받아 애국지사묘역 108호 최재형의 묘에 참배를 했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2009년에 최 발렌티가 현충원에 참배하려 갔을 때 묘는 멸실돼 있었고, 그는 묘가 있던 빈터에 꽃다발을 놓고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08호는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묘였기 때문에 후손이 가짜로 판명돼도 그 묘의 주인은 최재형 선생이다. 후손만 바뀌면 되는데 후손에게 연락도 없이 묘를 멸실시켰다는 것은 최재형 선생을 독립운동사에서 삭제시킨 것과 같다. 행정적으로 가짜 후손을 등록했다면 진짜 후손이 나타났을 때 시행착오를 밝히고 제대로 모셨어야 마땅하다.

할아버지의 묘에 참배를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연락도 없이 묘는 없어지고 남은 빈터만 보는 손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시 최 발렌티는 언어도 통하지 않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 채 그냥 돌아갔다.

손자는 2010년 자신이 러시아어로 출간한 책 (최재형)에 사진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실었다.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2015년 부부위패비 5번에 겨우 최재형 선생 부부의 이름만 올렸다. 기념사업회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재산과 생명까지 바친 연해주 항일독립운동의 대부인 최재형 선생을 200여 명이 넘는 부부위패비 한 귀퉁이에 이름만 올린 것이 항상 죄스럽고 안타까웠다.

2021년 최재형기념사업회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들은 최재형 순국 100주년을 맞아 보훈처와 청와대를 찾아가 후손도 모르게 멸실시킨 최재형 선생의 묘를 복원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행법만 내세워 반드시 유골이나 시신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과거의 정부가 잘

못한 일이 밝혀지면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순국선열의 예우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법이 바뀌었다고 잘못된 행정을 그래도 답습한다면 그 또한 과거의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는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의 희생자로 머나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방치돼 있다. 최재형 기념사업회는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최재형 선생 부인의 유골을 봉환해 올테니 1970년 11월 17일 조성돼 2009년까지 존재했던 최재형 선생의 묘를 복원해 부부합장묘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재형기념사업회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들은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올해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수교 30주년이다. 현재 후손들한테도 통의서를 받아놓았다. 부인의 유골과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의 집 마당에서 흙 한 줌을 가져오거나, 최재형 선생의 유골을 애국지사 묘역 108위에 부부합장묘로 복원시킬 준비가 돼 있다.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7주년이며 최재형 선생 탄신 162주년이다. 이렇듯 뜻깊은 해에 최재형 부부 합장묘를 애국지사묘역 108호에 복원해준다면 새 정부는 상징적으로 순국선열을 제대로 모셔서 과거정부와 차별화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흥범도 장군의 훈격을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시켜 유해를 고국으로 안장했다. 훈격을 최고등급으로 승격한 이 유가 흥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최재형 선생은 초기 독립운동의 태동지였던 연해주 항일독립운동의 대부였고 한인들의 폐치카였다. 또한 엄청난 재산과 목숨을 바쳤고 당시 연해주 한인들에게 난로역할을 하신 분이다. 게다가 1919년 11월부터 독립단 단장까지 했다.

1962년 서훈심사는 최재형 선생의 신분이 낮고 후손도 없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공감한다. 더더구나 연해주에서 최재형 선생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분들의 서훈은 거의 2등급인 대통령장이고 1990년 이후 서훈을 받은 분들도 모두 대통령장이다. 최재형 선생의 서훈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 재심의 조항이 없어서 조정을 못한다고 한다. 미비한 조항은 보완하면 되고, 없는 조항은 필요시 새로 만들어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법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같다. 정 안된다면 흥범도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처럼 별도의 추가서훈 방법이 있다.

최재형 선생은 함경북도 경원이 고향이라 지원해 줄 지자체도 없다.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구성원들은 최재형 선생과 혈연도 지연도 없는 순수한 단체로 그 어떤 이권도 사리사욕도 없다. 오로지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최재형 선생을 제대로 알리고 선양하는 단체이다.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재형 선생의 원래 묘였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08호를 복원해서, 키르기스스탄에 돌보는 이도 없이 방치돼 있는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의 유골을 국내로 모셔와 최재형 선생과 부부합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 Для наших бизнесменов и депутато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 – это не просто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а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 жизни. Здорово, что теперь, объединив усилия, мы можем помогать людям, которые больше всего в этом нуждаются.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ы» у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оказавш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появляется доступ к дорогостоящей технике и образованию, к стройматериалам для ремонта жиль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ают решать системные проблемы –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лучения путевки в детский сад, переквалификации.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ика, зачастую этих мер оказыва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улучшить финансов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семьи.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участвует в этом большом проекте. Не сомневаюсь, что дети, которым сегодня подарили ноутбуки, вырастут и тоже стану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ям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его ноутбуки получили 10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Долин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Технику приобрели руководитель ООО «Сервис-НБТФ» Андрей Серебрях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ООО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Александр Алфёров, президент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Дзюб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ОО «Сахалинстройальянс» Иван Дулесин и учредитель строитель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холдинга «Транстрой» Денис Молодцов. Также подарки – рюкзаки для учебы – для детей подго-

товили член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На празднич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ребята прошл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квест. В ходе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й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приручили роботов, блеснули эрудицией на викторин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ью и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м, попробовали себя в роли телеведущих. В качестве награды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ждал горячий чай с угощениями. Праздник для детей организовал директор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Тезона» Дмитрий Митяев.

Напомни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проходит конкурс на прем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ем заявок –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оци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2021-2022 годов. Оценивать значимость инициатив будет экспертная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состоящая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определят на все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에서 특수 아동들을 위한 축하 행사 조성

6월 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가가린 문화휴식 공원에서 이색적인 행사가 조성되었다. 전 러시아 장애아동 부모회와 '아리디' 장애아 단체의 사할린 지부 회원들이 국제 아동보호의날을 기념했다.

사할린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듯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으나 비바람이 치는 바

람에 아이들은 우리로 된 물건으로 피했다.

시공원 대중문화과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운데 배우들은 각 고객 프로그램의 여러 놀이에 참가시키며 즐거운 게임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기념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아동들이 많은 만큼 행사는 2회나 진행됐다.

모든 아동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고, 주최 측에서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Праздник для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устро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парке


4 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состоялся необычный празд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отмечали члены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дителей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и общества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АРИДИ.


Несмотря на капризную сахалинскую по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теплой и дружелюбной обстановке, от ветра и дождя юные сахалинцы укрылись в стеклянном павильоне.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й отдел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подготовил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Актеры вовлекли детей в забавные игры, делая участником большой забавы каждого гостя программы. Так как детей, желающих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азднике, было мног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ли дважды.


Для всех детей подготовили подарки. Те, кто не смог приехать на праздник, тоже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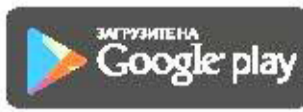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http://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